

“자고나니 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망연자실

집중호우 휩쓴 보성 가보니

“태풍 온다는데...” 한숨만 복구 작업을 엄두도 못내 침수 보성여중 오전 수업만 오늘도 호우... 불안감 확산

“자고 일어났더니 내 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 태풍까지 온다는데...”

2일 오후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모원저수지(일립저수지) 제방 앞. 지난 1일 새벽 시간당 80mm가 넘게 내린 폭우에 저수지 제방 127m중 50여m가 무너져 제방 주변을 포클레인 1대가 부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작업을 지켜보던 박성수(61)씨는 진흙 밭이 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무너진 제방 바로 밑에 있던 박씨의 4958㎡(1500평)규모 논은 제방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토사에 묻혔고 벼는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박씨는 “1945년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모원저수지가 인근 일립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라며 “태풍에다 또 비가 내린다는 데, 올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성군 보성을 봉산리 덕정마을에서 9만9173㎡(3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지원구(66)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씨는 “지난 1일 내린 폭우로 물길에 막히고 농수로가 범람해 눈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내래마을은 콘크리트 농로 50m가 무너져 내리고, 전신주가 떠내려 가는 등 전경터를 방불케 했다.



2일 보성군 보성을 봉산리 덕정마을 주민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담장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성=최원배 기자 choi@kwangju.co.kr

학교 1층 교무실과 운동장이 잠기는 등의 침수 피해를 입은 보성여자중학교는 이날 오전 수업만 한 뒤 귀가조치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집이 물에 잠긴 해남 문내면 주민들도 태풍 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다. 주택 침수로 5가구 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 마을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복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지반이 약해지고, 곳곳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해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일대에 쏟아진 물폭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의 북상으로 강풍과 비소식이 또 한차례 예보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사망 1명, 실종 1명, 경상 1명 등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45채, 농경지 50ha, 차량 침수 52대, 축사 1동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3일 태풍 ‘쁘라삐룬’

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이 태풍의 진로 변경으로 애초 직접 영향권에서 간접 영향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20~60mm 비와 돌풍, 낙뢰 등이 예상된다”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청년 구직자 올린 체불 사업주 구속

사기 취업 광고 모집 막일시켜 47명 임금 1억5000만원 피해

취업이 절박한 청년 구직자 수백여명을 속여 임금 등을 갈취한 30대 인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력업체 대표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서모(여·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나주·울산·인천·안산 등 전국적으로 7개 지사를 갖춘 인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 47명의 임금 1억5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관리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발일 등 현장 노동 업무만 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인사 담당), 월급여 200만원 이상 등’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해 구직자를 끌어 모았다.

이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3개월 수습 조건을 내걸고 무안 등 전국 각지로 보내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이씨는 특히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영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광주·목포 등 전국에서 모집됐으며,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 등은 잠적했으며,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꾸려 전수, 대전 등 주요 연고지를 탐문한 끝에 달아난 이씨를 붙잡았다.

노동청은 이씨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 30여건, 피해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미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일 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임금을 가로챈 악덕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19구급차 추돌사고...이송환자 안타까운 죽음

구급대원 등 4명 부상

응급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옆으로 넘어져 환자가 결국 숨졌다.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를 스타렉스 차량이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안에 타고 있던 환자 김모(여·91)씨와 구급대원 3명, 실습을 위해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실습생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김씨는 다른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께 숨졌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중 목에 음식물이 걸리면서 호흡곤란을 겪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당시 구급차에 탄 다른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서운 조울증...20대 여성, 고속버스서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 광주서 응급 치료 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남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40대 대학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하동경찰은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여·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인근 남해고속도로를 주행

하던 통영-광주간 45인승 고속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한 B(44·대학교수)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려달라”는 B씨의 외침을 들은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가방에 흉기 2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한 때 의식을 잃었으나, 광주의 한 대학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끝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버스에 타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

로 알려졌다. A씨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서 타고 있었으며, B씨는 A씨보다는 앞쪽 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과 최근 6개월여간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광주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왔으며,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추가로 흉기를 구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현재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유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전봇대 전선 훔친 50대 구속

진도경찰은 2일 “진도군 일대 농로에 전봇대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남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12일 밤 9시께 진도군 진도를 농로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잘라 가져가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도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16km·무게 4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전봇대(높이 7~10m)에 설치된 전선 중 보조 전력선(중선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출소 후 ‘갱생원’ 살머 도둑질 60대 다시 교도소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한때 새 삶을 꿈꿨던 60대 노령의 나 이와 지방까지 걸치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철창형.

○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68)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단독주택 2층에 침입해 금목걸이 3돈과 현금 2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는 것.

○전과 19범인 이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5월 만기출소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옛 갱생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복지공단은 갈 곳 없는 교도소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주선해 주는 등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노령인 이씨의 경우 당초와 고령화 등 지병까지 있어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